

아름다운 은퇴? “매달 60만원 저축해야”

■삼성증권 보고서 최소 4억원·친구 네명 있어야 준비된 노후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25년간 한 달에 최소 60만원씩은 저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8일 ‘은퇴 만큼 쉬운 일은 없다’라는 제목의 투자컨설팅 보고서에서 2인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5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가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보장자금의 규모는 4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일정부분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보장자금 준비를 위해 근로자가 매달 저축해야 하는 자금은 6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산정했다.

삼성증권은 1차 베이비부머 등이 본격적인 은퇴기로 진입하는 2010년 이후에는 ‘준비된 은퇴’의 문제가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준비된 은퇴의 문제는 전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또 일반적인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확정급여(DB)형 보다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현재의 저축규모를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은퇴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수익률을 고집하지 말고 저

축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현 연구위원은 준비된 은퇴를 위해서는 ‘네명의 친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네명의 친구는 장기적인 적립과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통해 저축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안정적인 비과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보험, 비상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립식핀드 등 네가지 금융상품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광 TKS조선, 1억달러 외자 유치

영광에 있는 TKS조선소(대표이사 고경주)가 말레이시아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지역 조선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됐다.

8일 TKS조선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LIMA)에서 TKS조선소와 말레이시아의 NGV조선소(회장 Zulkifli Shariff)가 총 1억달러 규모의 상호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지난 2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LIMA)에서 한국의 TKS와 현지의 NGV가 7천600만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본 계약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고경주 TKS 사장, 줄 NGV 회장, 탄 합참의장, 마하티르 전 총리, 나집 현 총리. (TKS 제공)

이번 외자유치 및 수주 서명식에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와 나집 톤 라자 현 총리, 아흐마디 자하드 하미미 국방부장관, 탄 아지즈 합참의장 등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TKS 측은 말레이시아로부터 TKS 자본인수 방식의 직접 투자 7천600만달러를 포함해 운전자금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된다. 계약은 말레이시아 NGV조선소가 해외수주를 책임지고 TKS조선소는 최고 품질의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KS 측은 이에 따라 NGV조선소는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한국

의 TKS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하고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NGV가 아시아와 중동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수주해 TKS조선소가 건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 NGV는 인근 파키스탄 및 국영회사 발주 물량을 포함해 내년에만 최소 6척 이상, 오는 2012년까지 21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주 TKS조선소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투자유치로 수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중형 조선소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1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병재 대표〉 〈정원주 대표〉

모아주택 산업포장 중흥주택 대통령표창

광주지역 주택건설사인 ㈜모아주택산업 신병재 대표이사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에서 열린 ‘2009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신 대표는 지난 1990년 주택건설업을 시작한 뒤 1만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서 광주지역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질 높은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보증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또 광주 주택건설사인 (합)중흥주택(대표이사 정원주)이 단체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안전한 식품 건강한 사회

끝나지 않는 ‘광우병 오해’ 안전 시스템 마련이 해법

지난해 광우병 파동 등을 비롯해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식품관련 사고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일련의 사고를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수많은 예방대책과 시스템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좀처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산 쇠고기 전면개방 1년을 맞아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본다.

1 국민 인식 어디까지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오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광우병을 비롯해 각종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광우병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광우병에 대한 오해도 여전히

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이른바 ‘주저앉는 소(다우너)’의 도축을 전면 금지했다.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선 검역 중단조치를 취하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담은 고시(告示)를 조만간 만들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광우병을 비롯해 각종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광우병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광우병에 대한 오해도 여전히

정부는 또 김치·된장·어묵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500대 품목의 ‘위해성분 분석목록’(리스크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내년까지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형량 강화, 수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 책임 강화, 대기 및 대형 판매점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책임 강화,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 대상품목 확대, 식품제조업소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형량 강화, 수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 책임 강화, 대기 및 대형 판매점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책임 강화,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 대상품목 확대, 식품제조업소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철저한 검역을 하면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21.1%)”가 “아니다(47.8%)”에 미치지 못했다. “원산지 표시대로 국산과 수입품이 구분돼 있어 광우병 쇠고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에 대해 “역시 그렇다(16.5%)”는 답이 “아니다(46.8%)”를 크게 밀었다.

정식 명칭이 ‘소해면상뇌증’인 광우병은 이 증상에 감염된 퇴세감동물의 장기를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공급하면서 생긴 질병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국

“특히 소비자 위생검점 참여제와 소비자탐사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외국정부나 국내 식품안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협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oboc.com

국제보청기

본점 (082) 227-9940
광주광역시 남구 서해안로 1-3
송향점 (08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8280
혁신점 (063) 851-2422

광주광역시

광주 전남 오피니언리더 100인

캐리커처展

2009. 12. 10 ~ 12. 20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
문의: 062-366-9300

광주 전남 오피니언리더 100인
스튜디오